

# 2017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 윤리와 사상 정답

1	④	2	④	3	②	4	③	5	③
6	②	7	①	8	③	9	①	10	③
11	⑤	12	④	13	⑤	14	④	15	③
16	⑤	17	④	18	⑤	19	②	20	①

### 윤리와 사상 해설

#### 1. [출제의도] 장자의 삶의 태도 이해하기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 및 인식의 한계 속에서 상대적인 가치관에 얽매어 있음을 비판하며, 정신적 절대 자유의 경지를 지향한다. 또한 인위적 조작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소요(逍遙)의 경지를 추구한다.

#### 2. [출제의도]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사르트르, 혹은 키르케고르이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며 인간은 먼저 실존한 후에 자기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가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내려야 함을 주장한다.

#### 3. [출제의도] 마르크스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비교하기

(가)는 마르크스주의, (나)는 민주 사회주의 사상이다. 마르크스주의는 폭력 혁명을 통해 공산사회를 실현하려는 입장이고, 민주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적 수단에 의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며 생산 수단의 공유를 바탕으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 4.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주희, 혹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앎과 실천 사이에는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이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주희는 이치가 마음과 사물에 모두 있다고 보는 반면, 왕수인은 마음 밖에 이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5. [출제의도]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 혹은 소크라테스이다. 상대주의 입장인 프로타고라스는 이성보다 감각을 중시하였으며 모든 가치 판단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반면, 절대주의 입장인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수련을 통해 얻은 참된 앎이 곧 행복이라고 본다.

#### 6.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이황, 혹은 이이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각기 다르다고 본다. 반면,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에서 발한 것으로 연원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보며, 사단은 칠정 중의 선한 감정을 일컫는 것일 뿐이라고 본다.

#### 7.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의예지라는 사덕(四德)을 본성으로 보는 성리학의 입장을 부정한다. 그는 인의예지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이 아니라 선을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 옳은 행위를 함으로써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덕으로 파악한다.

#### 8. [출제의도] 칸트와 밀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칸트, 혹은 밀이다. 칸트는 도덕 법칙이 선험적인 것이며,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이라고 본다. 또한 경향성에 따르는 행위는 결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밀은 베행의 양적 공리주의를 보완하여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도 있음을 주장한다.

#### 9. [출제의도] 배려 윤리와 덕 윤리 사상 비교하기

같은 배려 윤리 사상가인 길리건, 혹은 현대 덕 윤리학자 매킨타이어이다. 두 사상가는 모두 타인과의 관계성을 중시하고 도덕적 삶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우정, 사랑, 공감, 동정심 등과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중시한다.

#### 10. [출제의도] 신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같은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아퀴나스, 병은 스피노자이다. 중세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공통된 입장은 신은 유일하며 세상 만물을 창조한 인격적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신의 은총을 통해 내세에서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스피노자는 신, 즉 자연에 대해 이성적 관조를 하는 것이 필연적인 법칙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본다.

#### 11. [출제의도] 불교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대승 불교의 공(空) 사상에 대한 내용이다. 무명(無明)은 세계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불교에서는 무명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삼독(三毒)의 제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 12. [출제의도] 흄과 베탄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흄, 혹은 베탄이다. 흄에 따르면 이성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인간은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는 공감을 통해 사람들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선이라고 주장한다. 베탄은 행위 이전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유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13. [출제의도] 위정척사 사상과 동도서기론적 개화 사상 비교하기

같은 위정척사를 주장한 이항로, 혹은 동도서기론적 개화 사상가 신기선이다. 위정척사 사상은 성리학적 가치 체계와 문물은 지키고, 천주교와 서양 문물은 배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도서기론은 동양의 도(道)인 유교적 가치 체계를 기반으로 서양의 발달된 과학 기술과 군사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14.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맹자, 혹은 순자이다. 맹자는 사단(四端)을 근거로 성선설을 주장하였고, 순자는 성악설을 바탕으로 인간이 예(禮)를 통해 본성의 교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맹자는 하늘을 인간 본성의 근원으로 여기는 반면, 순자는 하늘과 인간의 직분은 독립적인 것이라고 본다.

#### 15. [출제의도]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사상 비교하기

(가)는 공동체주의, (나)는 자유주의이다. (가)에 비해 (나)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방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과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무관심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 통합을 가로막게 될 수 있다.

#### 16.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과와 스토아학파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에피쿠로스, 혹은 스토아학파의 아우렐리우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없는 상태를 참된 쾌락으로 보고 이를 삶의 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7. [출제의도] 흄스와 로크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흄스, 혹은 로크이다. 흄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본 반면, 로크는 자연 상태를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로 본다. 또한 로크는 정치적 의무가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본다.

#### 18. [출제의도] 헤겔과 지눌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헤겔, 혹은 지눌이다. 헤겔은 누구나 단박에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돈오를 주장한다. 지눌은 자신의 본성이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쌓인 잘못된 인식과 습관들을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 19. [출제의도] 롤스, 노직, 왈처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롤스, 혹은 노직, 병은 왈처이다. 롤스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원초적 입장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 노직은 만약 최초의 소유물이 부정의하게 획득되거나 이전된다면 부정의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왈처는 모든 사회에서 중요성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가치는 없으며, 어떤 사회적 가치도 지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20.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중용은 감정이나 욕구가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모든 행위와 감정의 중용 상태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며, 파렴치함이나 살인 등은 그 자체로 이미 나쁜 것이라고 본다.